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장숙희 · 박재경

조선간호대학 교수

## Role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ppiness and Loneliness of Hospice Volunteers

Jang, Sook-Hee · Park, Jae Kyoung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troll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ppiness and loneliness of hospice volunteer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0 hospice volunteers in G City. This study uses the happiness scale that Lee and Yu developed, the loneliness scale that Russell revised and Park translated, and Bandura's self-efficacy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OVA, and hierarchal regression by using SPSS 12.0. **Results:** The happiness scale of the subjects, based on general traits, was significant in occupation and image. The loneliness scale was significant in monthly income. The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was significant in monthly income, occupation, and hobby. The happiness of the volunteers affected loneliness.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ppiness and loneliness of the volunteers, self-efficacy did not have controlling influences.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happiness can affect loneliness without the controlling influence of self-efficacy. As such, it would be beneficial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improve the happiness of hospice volunteers.

**Key Words:** Hospice Volunteer, Happiness, Loneliness, Self-Efficacy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 말기 환자들의 생명연장은 이루어졌으나, 남은 생애 동안 질적인 삶을 살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돕는 문제와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정 내에서 말기 환자를 지속적으로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은 의료계와 재가 복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호스피스가 대두되고 있다(National Cancer Center,

2005).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 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로 하여금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해주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는 총체적인 돌봄으로 조정자, 의사, 간호사, 사목자, 사회사업가, 치료사, 영양사, 약사, 심리학자로 구성된 전문팀과 환자, 환자가족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비전문팀이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이 특

**주요어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행복, 고독감, 자기효능감

\*본 연구는 2009년도 조선간호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Chosun Nursing College in 2009.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Jae Kyoung

Chosun Nursing College, 280 Seoseok-dong, Dong-gu, Gwangju 501-825, Korea  
Tel: 82-62-231-7355 Fax: 82-62-232-9072 E-mail: jkpark@cnc.ac.kr

투고일 : 2009년 10월 23일 심사회의일 : 2009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2월 13일

징이다. 비 전문팀의 일원 중 자원봉사자의 수는 전체 호스피스 구성원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말기환자와 함께 하면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하므로(Catholic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Hospice/Palliative Care, 2006),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발적이고 무보수를 특징으로 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말기환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기여를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고, 봉사에 대한 만족감으로 행복을 느끼며(Kwon, 2008),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꼈으며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한다(Lee, 1995). 또한 Seligman (Kim, 2006)은 가족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의 중요한 측면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은 개인적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삶의 만족을 경험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행복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본 Morrow-Howell, Hinterlong, Rozario와 Tang (2003)은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한 시간이 더 많을수록 그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어 주관적 안녕수준이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으며, Cho (2008)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 수준의 안녕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봉사활동이 항상 긍정적 기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동기가 충족되지 못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된다(Batson & Weeks, 1996). 호스피스 자원봉사는 말기환자를 돌보는 특성상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의 공포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종종 느끼며, 이는 봉사자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2001). 이로 인한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봉사활동의 성취수준을 저하시키며, 요구수준 보다 낮은 성취수준은 고독감을 일으킬 수 있다(Shin, 2000). 고독감이 높아지면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으며, 특히 만성적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무능하며,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있어 대체로 자기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ussell, Peplau, & Cutrona, 1980). 그러므로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총체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는 호스피스 활동에서는 고독감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Richard (1992)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과 고독감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행복이 높아질수록 고독감이 낮아짐을 밝히면서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5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Yu의 연구(as cited in Koo & Kim, 2006)에서도 행복은 부정정서, 부정경험과 모

두와 유의미한 수준의 부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이 고독감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잘 잘 조절할 수 있는 자질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Bandura (1997)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기능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할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과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 하였다. 즉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이나 정신력, 의지력이 아닌 자기효능감이며,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성취수준에 강한 결정변인으로 작용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 개인 삶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것에 잘 대처하도록 해주며, 개인의 부정적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높은 자기효능감은 일의 지속력을 갖게 하고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성취수준의 강한 결정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Choi, Choi와 Suh (2007)의 연구에서도 높은 자기효능감은 죽음 불안을 감소시켜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행복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Koo, 2005; Koo & Kim, 2006)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게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호스피스 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봉사경험을 통해 자아실현에 한 발 나아가며 이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독감도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효능감이 행복과 고독에 관련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 관한 연구는 자원봉사에 만족도(Jung, 2009; Lee, 2001)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만족도와 호스피스 간호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복이 고독감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행복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행복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첫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행복, 고독감,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감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넷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감과 고독감과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한다.

### 3. 연구 가설

가설 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이 고독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과 고독감과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4. 용어 정의

#### 1) 행복

행복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며(Diener, 1984),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의 봉사자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Yu (2007)가 개발한 행복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고독감

고독감은 개인이 갖는 사회적 관계가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기대보다 부족할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감정으로서(Peplau & Perlman, 1982),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고독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판 UCLA 외로움 도구(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 Russell, Peplau, & Cutrona, 1980)를 Park (1998)이 변안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고독감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자기 효능감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할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으로써(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자기행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 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가 G시에 있는 호스피스기관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제한성이 있으며, 대상자가 특정 종교를 가진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종교적인 특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행복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행복과 고독감과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G시 호스피스 기관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봉사자 총 130명을 임의 표집하였고,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팀장의 도움을 받아 면접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8월 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총 130명의 자원봉사자를 면접 설문하였으나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거나 대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10부를 제외하고 120부(92.3%)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행복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Yu (2007)가 개발한 행복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총 문항 수는 8문항으로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880이었다.

#### 2) 고독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느끼는 고독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ussell 등(1980)이 개정한 UCLA Loneliness Scale을 Park (1998)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총 문항 수는 20문항이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 2점 거의 그렇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거의 그렇지 않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 되었고, 부정문항은 역 채점하여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고독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값은 .889이었다.

#### 3) 자기효능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지각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Bandura (1997)의 자기효능감 척도 중에서 하위변인인 자기효능감을 5개의 문항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으며 4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56$ 이었다.

**4. 자료 처리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계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ANOVA로, 자원봉사자의 행복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회귀분석으로, 행복감과 고독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의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에 있어서 41세 이상이 96.7%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99.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교육정도는 고졸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25.8%, 중졸이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봉사 경력은 3-5년 미만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	Category	n (%)
Age (yr)	41 yr and above	116 (96.7)
Religion	Christianity	119 (99.2)
	None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15 (12.5)
	High school graduate	64 (53.3)
	College/University graduate	31 (25.8)
Volunteering experience	< 1 yr	11 (9.2)
	≥ 1 yr-<3 yr	36 (30.0)
	≥ 3 yr-<5 yr	39 (32.5)
	≥ 5 yr	28 (23.3)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55 (45.8)
	≥ 100-<200	22 (18.3)
	≥ 200-<300	13 (10.8)
	≥ 300	22 (18.3)
Marital state	Married	109 (90.8)
Occupation	Office work	5 (4.2)
	Service work	5 (4.2)
	Professional work	6 (5.0)
	Housewives	69 (57.5)
	Others	33 (27.5)
Hobby	Yes	87 (72.5)
	No	28 (23.3)
Self-satisfaction	Moderate	55 (45.8)
	Good	50 (41.7)
	Very good	11 (9.2)

30.0%, 5년 이상-10년 미만이 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만 원 미만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 원 이상과 100-200만 원 미만이 18.3%, 200-300만 원 미만이 1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주부가 57.53%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가 27.5%였는데 이는 다양한 직업군을 한데 묶어 나타나는 것으로, 전문직이 5.0%의 순이었다. 취미는 있다가 72.5%로 없다인 23.3%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아 이미지는 보통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이 41.7%, 매우 만족이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정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행복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특성은 직업, 자아 이미지로 나타났다( $p<.05$ ). 그 결과는 직업에서 상업·사업·서비스를 가진 대상자가 다른 직업을 가진 대상자에 비해 행복 정도가 높았고( $F=2.657, p=.036$ ), 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매우 만족한 대상자가 만족이나 불만족을 나타낸 대상자보다 행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4.023, p=.021$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독감 정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고독감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특성은 월수입( $p<.05$ )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월수입이 100만 원 미만의 대상자가 더 많은 수입이 있는 대상자보다 고독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3.336, p=.022$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특성은 월수입, 직업, 취미로 나타났다( $p<.05$ ). 그 결과는, 월수입이 100-2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가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 200-3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인 대상자보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았고( $F=11.879, p=.000$ ), 전문직을 가진 대상자가 다른 직업을 가진 대상자 보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았다( $F=6.586, p=.000$ ). 취미유무에서는 취미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F=5.454, p=.021$ ) (Table 2).

**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의 단계적 회귀분석은 Table 3과 같다. 종속변

Table 2. The Level of Happiness, Loneliness, and Self Efficacy

(N=120)

Item	Category	Happiness			Loneliness			Self-efficacy		
		M±SD	F	p	M±SD	F	p	M±SD	F	p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3.81 ± .47	1.054	.352	2.15 ± .45	1.977	.144	3.25 ± .64	0.913	.404
	High school graduate	3.60 ± .54			2.37 ± .52			3.09 ± .53		
	College/University graduate	3.59 ± .49			2.19 ± .50			3.04 ± .37		
Volunteering experience	<1 yr	3.78 ± .70	1.119	.345	2.62 ± .29	1.979	.121	3.27 ± .61	2.268	.085
	≥ 1 yr-<3 yr	3.50 ± .47			2.29 ± .54			2.96 ± .48		
	≥ 3 yr-<5 yr	3.67 ± .51			2.22 ± .48			3.09 ± .51		
	≥ 5 yr	3.66 ± .51			2.21 ± .57			3.26 ± .44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3.57 ± .54	0.411	.745	2.41 ± .50	3.336	.022*	2.87 ± .48	11.879	.000*
	≥ 100-<200	3.70 ± .62			2.23 ± .55			3.45 ± .44		
	≥ 200-<300	3.63 ± .60			2.00 ± .41			3.18 ± .45		
	≥ 300	3.67 ± .40			2.11 ± .54			3.35 ± .37		
Occupation	Office work	3.15 ± .30	2.657	.036*	2.17 ± .46	1.655	.166	3.36 ± .33	6.568	.000*
	Service work	4.27 ± .23			1.78 ± .44			3.30 ± .46		
	Professional work	3.83 ± 1.17			2.39 ± .79			3.37 ± .37		
	Housewives	3.57 ± .62			2.28 ± .65			3.19 ± .53		
	Others	3.55 ± .43			2.44 ± .30			2.84 ± .29		
Hobby	Yes	3.61 ± .51	2.504	.116	2.31 ± .53	0.322	.572	3.17 ± .51	5.454	.021*
	None	3.40 ± .86			2.38 ± .67			2.92 ± .46		
Self-satisfaction	Moderate	3.43 ± .66	4.023	.021*	2.39 ± .65	1.042	.356	3.00 ± .43	2.833	.63
	Good	3.74 ± .39			2.23 ± .44			3.23 ± .50		
	Very good	3.76 ± .87			2.32 ± .59			3.18 ± .70		

\*p<.05.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the happiness and loneliness and the controlling influences of self-efficacy

(N=120)

Independent variable	1st step			2nd step			3rd step		
	Beta	t	Sig	Beta	t	Sig	Beta	t	Sig
Happiness (A)	-.450	-5.386	.000*	-.398	-4.521	.000*	-1.340	-2.202	.030**
Self-efficacy (B)				-.156	-1.777	.078	-1.059	-1.815	.072
AxB							1.514	1.565	.120
R <sup>2</sup>		.203			.225			.241	
F		29.007			16.358			11.861	
Sig-F		.000*			.000*			.000*	

\*p<.001; \*\*p<.05.

수인 고독감에 대한 변수(행복, 자기효능감, 행복×자기효능감)별 설명 정도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20.3%, 2단계에서는 23.5%, 3단계에서는 2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을 살펴보면 1단계는 29.007, 2단계에서는 16.358, 3단계에서는 11.861로 나타나 조절변수가 투입된 후에도 전체모형에서 유의하였다.

이 모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첫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이 고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의 검증에서는 행복이 고독감에( $\beta = -.450$ )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지지되었다( $p = .000$ ).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 계수( $R^2$ )는 20.3%로 나타났다. 둘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과 고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할 것이다' 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별 분석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행복에서 유의하였으며( $p < .05$ ), 2단계는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투입한 결과 행복에서만 유의하였다( $p < .05$ ). 3단계에서는 행복에서만 유의하였고( $p < .05$ ),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교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였을 때는 유의하지 않아서( $p > .05$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 논 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

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행복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직업과 자아 이미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직업을 살펴보면, 상업, 사업, 서비스를 가진 직업군에서 행복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분포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라 할 수 없겠다. 대상자 중 57.5%가 전업 주부였는데, Park과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와 직장인인 주부는 행복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없으며, 직업을 가진 주부에서도 직업의 종류가 아닌 직업의 성취정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상업, 사업, 서비스의 직업군에서 행복정도가 높게 나온 것은 아마도 대상자가 자유롭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직업성취도가 높은 구성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대상자의 자아 이미지 만족정도였는데, 대상자가 자아 이미지에 매우 만족할수록 행복이 높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는 자아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과의 관계는 순 상관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 이미지란 개인이 대상인 객체로서의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의 총체로서(Rosenberg, 1979),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활경험에 근거하여 자기의 구성요소들을 끊임없이 평가하며, 그 평가 결과는 자존감의 기초가 된다. 자기평가에서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이상적 자기상이며, 자신이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들을 의미한다. Morretti와 Higgins (1990)는 실제적 자기상과 이상적 자기상의 격차가 적을수록 긍정적 자존감과 주관적 안녕이 증가함을 보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위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며,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태도와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고독감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월수입이 100만 원 미만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고독감이 높은 것으로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들(Lee, 2004; Yang & Hong, 2003)과 일치하며, 수입원인 직업이 없을 때 고독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입과 고독감간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 Kwon (1998)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아마도 경제적 수준은 대상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낮은 경제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기본적인 욕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저소득 집단에서는 자기계발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얻고 인정을 받는 것이 고소득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저소득 집단에서의 높은 고독감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 진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문직의 직업군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직의 과제가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필요로 하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 직업가치 인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기효능감이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집단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집단보다 직업 가치 인식수준이 높다는 Lee (2003)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미활동은 휴식과 재미를 줌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강요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높은 자기효능감이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1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이 고독감에 영향( $\beta = -.450$ )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으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의 교호작용을 투입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아( $p > .05$ ), 가설 2는 행복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봉사자에게 자기효능감이 없어도 행복만으로도 고독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Yoon (1996)은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고독감이나 소외감이 해소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봉사 기관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소속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이 높아진다는 Lee (2008)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 고독감의 저하의 이유가 주관적 안녕 즉 행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이 고독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다는 여러 연구결과(Koo & Kim, 2006; Park & Kim, 2009)들을 근거로 행복과 자기효능감의 교호작용시 고독감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적 분석에서 오직 행복만이 고독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고독감 해소를 위해서는 행복을 더욱 증진시켜야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봉사자의 고독감을 감소하기 위해서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적용한 행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행복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행복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G시에서 2009년 8월 3일부터 27일까지 호스피스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120명에게 연구자가 면접설문을 하였으며, 연구도구로는 행복 측정은 Lee와 Yu (2007)가 개발한 행복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고독감 측정은 Russell 등(1980)이 개정한 UCLA Loneliness Scale을 Park (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 측정은 Bandura (199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880, .889, .756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행복, 고독감,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 각 특성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ANOVA,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다단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행복정도는 직업( $F=2.657, p=.036$ ), 자아 이미지( $F=4.023, p=.021$ )에서, 대상자의 고독감 정도는 월수입( $F=3.336, p=.022$ )에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월수입( $F=11.879, p=.000$ ), 직업( $F=6.586, p=.000$ ), 취미( $F=5.454, p=.02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이 고독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고( $R^2=.203, p=.000$ ), 가설 2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R^2=.241, p=.000$ ).

그러므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행복과 고독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복만으로도 고독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간호의 질의 향상을 위한 고독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봉사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적용한 행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더 많은 대상자의 조사가 필요하며, 자기효능감이 없어도, 봉사자의 행복이 고독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봉사자들의 개인적이 행복을 위해서 개인적, 조직적 차원의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봉사자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자의 노력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봉사자들 스스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봉사자들의 고독감이 감소되어야 간호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때 고독감의 중재 역시 중요한 변수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tson, C. D., & Weeks, J. L. (1996). Mood effects of unsuccessful helping: Another test of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48-157.
- Catholic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Hospice/Palliative Care. (2006).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oul: Koonja.
- Cho, Y. J. (2008). The elderly volunteers'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effects of old people's generativity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7, 191-205.
- Choi, W. S., Choi, S. N., & Suh, W. K. (2007). A study on hospice volunteers' self-efficacy and death anxiet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 193-212.
- Diener, E. (1984). Subject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Jung, Y. S. (2009). *Research on the factors of the satisfaction on the volunteer hospice activity*.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I. J. (2006). *Positive psychology*. Seoul: Moolpure.
- Koo, J. S. (2005).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efficacy, beliefs, life experiences and subjective well-being: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Koo, J. S., & Kim, U. C. (2006). Integrated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trait, life exper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therapy*, 20, 1-18.
- Kwon, S. M. (2008). *Positive psychology*. Seoul: Hakjisa.
- Kwon, S. S. (1998). Analysis on the loneliness according to health behavior in the elderly at hom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4, 5-13.
- Lee, E. S. (1995). *Influence on the volunteers and family for volunteers participating in Hosp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E. K. (2003).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career value and maturity level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Lee, J. L. (2001). *Th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hospice volunte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 Lee, S. J. (2008). The relationship of Social Connectedness with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 *Educational Research*, 27, 67-87.
- Lee, S. H., & Yu, S. M. (2007). Exploratory methods with health,

- happiness, peace development of measures.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9, 50-150.
- Lee, S. M. (2004). Loneliness of old married couple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 37-54.
- Morretti, M. M., & Higgins, E. T. (1990). Relating self-discrepancy to self-esteem: The contribution of discrepancies beyond actual-self rating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108-123.
- Morrow-Howell, N., Hinterlong, J., Rozario, P. A., & Tang, F. (2003).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well-being of older adult.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 and Social Science*, 58, 37-45.
- National Cancer Center. (2005). *Medical expenditure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with actual condition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Park, S. Y. (1998).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Y. S., & Kim, U. C. (2009).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How do they influence happiness among Korean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 95-132.
-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1-20. New York: Wiley-Interscience.
- Richard, B. (1992).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loneliness, and shynes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157-162.
- Rosenberg, T. (1979). *Conceiving the Self*. Basic Books, New York.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L.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hin, H. W. (2000). The study of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loneliness for loneliness-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 57-78.
- Yang, S. M., & Hong, S. J. (2003). Living arrangement and psychological loneliness of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 129-139.
- Yoon, M. H. (1996). *A study on the loneliness and the volunteer services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